

안전은 기본이 중요합니다



비수처럼 가슴팍에 꽂히는 찬 바람과 씩씩때때다 콧구멍을 열어 붙게하고 마는 냉기가 놀란 자라목 처럼 한뼘의 살갓이라도 외투속으로 급히 숨어들게 만든다. 그나마, 가는길 양옆으로 보이는 그만 그만한 키를 가진 산자락을 다소곳이 품고 있는 설경의 평온함이 한파에 대한 기상 관측 기록 갱신의 맹위를 잠시 잊게 한다.

LG건설에서 시공하고 있는 수지LG빌리지 3차 현장에 들어서자 마자 입구에 턱 버티고 서 있는 안전환경 체험 교육장의 든든한 모습과 그곳에서 달구어졌을 현장 사람들의 안전에 대한 열기를 느끼는 순간 냉기는 오히려 압도되고 만다.

수지읍 성북리 133번지에 산자락을 타고 위치하는 수지 LG빌리지 3차 현장은 1999년 10월에 착공한 52평,63평,79평,92평 15개동 1,234세대의 규모로 연면적 98,396.84평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이며, 2002년 8월말 최고 수준의 그 모습을 들어낼 예정으로 현재 33%의 공정으로 한창 골조공사가 진행중이다.

여기, 현장 소장을 맡고 있으면서 안전을 남다르게 염려하는 사람 류병두 소장을 만나서 그가 펼치는 안전시공 의지와 활동, 앞으로의 바람을 들어 보았다.

「우선, 우리 현장의 특성 중 하나가 산자락을

초일류 건설현장 탐방

짜아서 그 위에 52~92평형의 대형 아파트를 20층까지 시공해야 하는데, 그에 따른 토사붕괴와 장비사고, 추락과 낙하물에 의한 재해 위험이 크다는 데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터파기 등 토목공사 과정에서는 사전에 SOILNAILING공법 적용을 비롯하여 철저한 계측관리와 전직원의 책임 안전점검 실시로 사고 없이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류병두 소장은 시공중 안전성 확보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위험인자를 제거할 수 있는 사전안전성에 대한 분석과 확보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다.

수지LG빌리지 3차 현장은 지난 11월 7일 무재해 150만 인시를 달성하고 현재 180만인시 이상의 기록 행진을 하고 있고, 안전보건 초일류 기



▲소장 류병두

업 인증과 더불어 각종 안전보건 교육 및 활동 우수사례 공모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안전현장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또한 건설 용어 우리말 사용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고 건설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작년 한해 동안만의 실적도 괄목 할만하다.

이에 대해 류병두 소장은

「직원과 전근로자가 하나되어 안전의 기본을 잊지 않고 기본을 충실히 이행하려고 노력한 결과이며 그간의 건설회사 생활을 통하여 그 중요함을 한번도 잊어 본적이 없다.」고 힘주어 말하며 재해 예방의 첩경은 안전교육, 안전보호구, 안전시설, 불안전 행동금지, 정리정돈 등 모든 부분에



▲ 현장 체험 교육 장면

있어 기본 사항을 소홀히 하지 말것을 강조하고 있다.

현장 입구부터 현장 곳곳에 부착되어 있는 깔끔하고 근로자가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하여 도안한 각종 안전 표지판과 홍보물도 펍 인상적이다.

이런 단정한 분위기라면 근로자 안전의식의 준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 지겠다는 생각이다.

이 현장의 무재해 기록과 수상 실적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에 대한 현장의 활동과 기법을 덧붙이면, 우선 이 현장은 신규채용 근로자의 관리에서 부터 남다르다. 일용직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 검진을 실시하기 위하여 현장내에 「건강 검진 센터」를 설치하여 매일 의사와 간호사 5명이 상시 출근하여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건강검진과 건강 상담을 해주고 있다.

여기서는 의학적인 소견상 부적격자 뿐만이 아니고 정신불안 등의 위험인자를 가진 현장 부적격자를 가려내어 채용에서 제외시켜 재해 발생 요인을 최소화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신규채용자 교육을 포함한 모든 안전보건 교육이 실습, 체험 중심으로 이루어진

단계별, 상황별로 구분한 3STEP 안전교육을 실시 한다는 것이다. 현장내에 약 130평 규모의 「건설안전환경 체험 교육장」을 설치하여 모든 근로자가 체험 교육을 이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전교육장을 이론 교육장과 실습 교육장으로 분류하여 이론 교육후 실습 교육을 통하여 공중별 위험요소를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습 교육장은 실제 건설 현장에서 공중별로 사용하고 있는 기계·기구, 작업안전시설물 등을 비치하여 놓고 사용 및 관리상의 위험에 대해 실증적으로 체득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로써 이동이 잦고 노령화·여성화되고 있는 현장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자가 쉽게 접근하고 흥미있게 체득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안전 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태도특별 안전교육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해당 공중의 근로자 전원과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1시간 이상의 태도교육과 관계자 전원이 토론을 통하여 스스로 대책을 수립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도 흥미롭다.

이 밖에도 「의식개혁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복장, 보호구, 작업방법, 정리정돈, 안전조치 등을 바로하자는 취지의 “로바로 운동”과 “작업중/보행중 금연”을 통하여 화재예방은 물론 작업시 집중력 저하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고 “우리말 사용”, “타공중 피해예방” 활동도 함께 추진하고 있어서 한단계 높은 안전 관리를 기대해 봄직하다.

불안전 상태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하여 안전시설 부분의



초일류 건설현장 탐방

투자과 연구도 중요한데 건설 재해의 많은 부분을 점유하고 있고 중대 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은 추락 재해 예방을 위해서 Gang Form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안전과 작업 편의성을 고려하여 건물과 Gang Form과의 이격 거리와 Form간의 간격을 최소화 하도록 했고, E/V pit와 출입구에 안전기준 이상의 일체화된 방망과 난간대를 설치하고 metal망을 부착하여 출입구 상부까지 완전히 차폐, E/V주변에서 견출작업 등 작업 발판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때의 추락도 막도록 했다. 더불어서

E/V pit내의 골조 작업시 set화된 전용 form을 적용하여 안전성과 작업 편의성을 두루 해결하고 있다.

추락 예방과 관련하여서 S/T, A/D등 건물내 소형 개구부 부위에는 con'c타설전에 미리 metal망을 끼워 넣어 원천적 안전을 확보하고 있고, 비계, slab, 계단 등의 난간대도 사유 발생 즉시 설치하여 재해의 틈을 차단하고 있다.

B/T, 사다리 등 작업시설과 각종 기계·기구에 대해서는 공중 투입전에 안전 기준을 명확히 주어 기준에 미달되는 제품은 아예 현장 반입을 차단하고 있고, 승인된 제품도 정기적으로 일제 점검을 통하여 엄격 관리 하고 있어서 사전, 사후 안전 관리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침조희

소방훈련

일용근로자 건강검진

작업중 근로자의 불안전 행동도 소홀히 지나칠 수 없는 사항인데 수지 LG빌리지 3차현장에서 돋보이는 것 중의 하나가 안전 순찰을 보조하는 안전요원수를 현장 실정에 맞게 두고 활발한 활동을 하도록 운영하고 있어 작업중 발생 할 수 있는 안전 사각 지대에 조명을 밝혀 주고 있는 것이다.

「공사 초기에 현장 안전 규정을 엄격히 운영하다보니 인력수급이 상당히 힘들었다.」고 회고 하는 류병두 소장은 잘하는 근로자와 잘못하는 근로자를 엄격히 구분하여 우수 근로자는 각종 포상을 아끼지 않고, 상습적으로 안전 규정을 위반하는

근로자는 지도와 아울러 벌금 적용, 현장 출입금지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고 한다.

「현장 직원과 근로자가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일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근로자 한사람 한사람을 그렇게 생각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 이고요, 아무쪼록 우리 현장 가족 모두가 재해에 노출되지 않고 늘 건강하고 행복 했으면 합니다.」고 말하며 살짝 웃는 류병두 소장의 보기 좋게 주름진 얼굴에서 확고한 무재해 의지와 근로자를 먼저 이해하려는 마음씨 좋은 옆집 아저씨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수지 LG빌리지 3차 현장의 무재해와 원활한 공사 수행을 바라며 2002년 8월 최고 수준의 걸작 아파트 탄생을 기대해 본다. 